그린·레드바이오 결합 지역 산업 생태계 전환

동물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조감도

익산시가 농생명 중심의 그린바이오와 보건·의약 분야인 레드바이오를 결합한 산업 생태계 전환으로 국내 최대 바이오 메카로 도약한다.

특히 익산시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기반 조성에 이어 최근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가 착공하면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발을 뗐다.

이를 기점으로 시는 기술과 창업이 선순환하는 클러스터를 순차적으로 구축해 그린·레드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한다. 지역의 최대 강점인 산·학·연 인프라를 활용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신산업 중심의 산업지형 재편으로 지역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
국내 바이오산업 선도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2024년 완공 목표 행정절차 진행
5산단 중심 미래성장동력 육성
들어설 시 인구 유입 효과 기대

5산단 조감도

▲국내 바이오 산업 선도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

시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중심의 국내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에 뛰어들었다.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연구 개발을 고도화하기 위해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이곳을 중심으로 신·변종 질병 예방백신과 고부가가치 동물용의약품 개발, 반려동물 제품·사료 개발, 의약품 생산용 임상시설 구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 첫 단계 사업으로 모든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정성 평가센터'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인근에 건립된다.

시는 지난 2020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1단계 사업비로 250억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230㎡ 규모로 전문 GLP(우수실험실관리기준), GCP(임상시험관리기준) 시험시설, 동물사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센터 운영은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이 맡게 되며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와 함께 역학·혈청학·기능학적 분석을 통한 동물의약품 효능을 입증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기점으로 동물용의약품 평가·시험, 시제품 생산 지원, Test bed 등 동물용의약품 R&D와 산업화 기반을 조성해 관련 시설을 집적화한다. 이어 지역의 연구기관, 전국 최대 육가공 기업 등을 활용해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구축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인간·동물·환경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내 최대 바이오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한 생산유발효과는 2,000억원, 5,5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 등이 예상된다.

▲전국 최고 농생명 인프라 보유, 그린바이오 벤처창업 허브 도약

익산시는 지난해 전국 제일의 농생명 산업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농식품부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국비 포함 총 264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함열농공단지 2만8천㎡ 부지를 매입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캠퍼스는 기업 입주공간과 회의실, 연구·실험시설 등이 들어서며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기업과 연구, 투자기관 등이 입주해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어 창업 상담과 사업화 자금 지원, 컨설팅 서비스까지 연계해 그린바이오 벤처기업의 창업 확대와 지원, 보육 기능 환경을 제공하는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캠퍼스를 중심으로 농생명 분야 기업과 연구시설을 집적화되면 북부권은 명실상부한 농생명 수도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주목할 만하다. 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148억원의 부가가치와 247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협약

▲바이오 중심,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5산단 조성

시는 새롭게 조성될 5산단을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을 선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제5산업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으며 용역을 통해 개발, 산업 여건 분석, 최적 입지와 유치업종 선정,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산단은 약 330만㎡(약 100만평) 규모로 바이오식품과 농생명 분야를 특화하고 화학·에너지, 의약, 장비 등의 산업으로 확장시켜 차별화된 혁신 성장 거점으로 조성된다.

시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최적입지 선정,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 검토, 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다양한 미래 구상이 담긴 5산단이 들어서면 미래 신산업 기술과 창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가치사슬을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물론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

이를 토대로 시는 정부의 대규모 투자 확대가 전망되는 바이오 융합신업에 대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도전과 기회의 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 최고의 산·학·연 인프라를 중심으로 동물산업과 그린바이오 중심의 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혁신시켜 나가겠다"며 "신산업 중심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20th 소리 전주세계소리축제 JEONJU INT'L SORI FESTIVAL
2022. 9. 16.(금) - 25.(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부안 채석강
전주 치명자산성지평화의전당 |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연화루

2022 전주세계소리축제 LINE UP

Focus on 더늠
개막공연 〈백년의 서사〉
폐막공연 〈전북청년열전-In C〉
전주세계소리축제×KBS교향악단 <접점>
판소리다섯바탕
〈심청 패러독스-방수미×박애리×정상희〉
(포르투갈) Bate Fado 바트 파두
(스페인) Flamenco Reborn 플라멩코 리:본

오래된 결 : 전통 Being Heritage
판소리다섯바탕
〈왕기석, 박지윤, 김도현, 유태평양〉
산조의 밤 〈이동훈, 원완철〉
광대의 노래 〈풍운(風韻) - 풍류와 운치〉
마스터 클래스
〈김일구, 배연형, 최동현, 조상현〉
강릉단오제 단오굿
서산박첨지놀이

온고이지신 Young and Frontier
젊은판소리다섯바탕
〈김정훈, 김원기, 김나영, 정윤형, 김주리〉
오늘의 시나위 〈방울성, Project.여운〉
소리프론티어 시즌2
· 김봉영×김승진 〈판소리 드라마 '다시 쓴 엽서'〉
· 소리극단 도채비 〈도채비 SSUL 적벽대전〉
· 그레이바이실버 〈사계의 사잇곡〉
· 소리 〈로큰롤 심봉사뎐〉

너머의 감각 : 컨템포러리 World Music Today
(한국) 고니아 〈장단 위의 선율〉
(슬로바키아) 파코라 트리오 Pacora Trio
(한국) 더튠 〈월담〉
(한국) 덩기두밥 프로젝트
(대만) 더 캐쳐팡저 프로젝트 The Katzerfanger Project
(폴란드) 텡기에 흐워피 Tegie Chłopy
(한국) 유희스카 〈니나노 콘서트〉

헬로우! 패밀리 Kids & Family
이머시브 가족뮤지컬 <알피 ALPI>
어린이 국악극 <우리랑 진도깨비>
전북어린이대음악제
소리배움터 〈강령탈춤 배우기〉

소리 인터페이스 Special & Popular
[전주세계소리축제 X 전북CBS]
마에스트로 정명훈 실내악 콘서트
Two Guitars : 박규희 X 박주원
안예은 콘서트 : 전주 상사화

글로컬 랩 Glocal Lab
전주판소리합창단 〈소리로 노래하다〉
살롱드국악 선율모리 〈듣, 보, 고〉 풍류
세악사 〈싱잉볼, 재즈트리오를 만나다〉
연희단 청연 〈힙한 광대들〉
2022 맺음굿 : 진안중평굿보존회
2022 찾아가는 소리축제
국악 AI 학습 데이터 해커톤
〈기계학습데이터 맵핑_Sori N〉